

[ 영화 ]

‘마더’ 김혜자

그녀들의 명품 연기

‘박쥐’ 김해숙

엄마란 이런 것

헌신적 모성 연기 압권 ... 찬사 쏟아져

올들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한국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와 봉준호 감독의 ‘마더’다. ‘박쥐’와 ‘마더’에는 강력한 인상의 ‘엄마’가 등장한다. 엄마 역할을 맡은 두 배우는 범접할 수 없는 연기 내공을 보여준다. ‘연기의 끝을 보여줬다’ ‘연기가 접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두 여배우에게 쏟아진 찬사다. 김혜자와 김해숙, 중년 여배우의 한계를 뛰어넘은 두 배우의 활약을 들여다 본다.

‘마더’에는 유난히 얼굴 클로즈업이 많다. 특히 김혜자는 화면을 가득 채운 ‘눈’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더’의 김혜자는 첫 장면부터 관객들 사로잡는다. 갈대야 물결치는 하회리판,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온다.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그녀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녀의 표정은 소름이 돋게 한다.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아들이 범 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 뒤늦게 서 치는 반전이 숨어 있는 고물상에서 뿔뿔이 사실을 알게 된 장면에서 보여주는 연기 등을 수 없는 명장면이 줄줄이 있다.

▲‘마더’의 김혜자



영화 ‘마더’를 보고 있으면 첫 장면에서부터 왜 감독 봉준호가 “이 영화는 꼭 김혜자가 해야 한다”고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마더’는 이야기가 촘촘히 짜여져 있다. 허투로 남비되는 장면도 없다. 그 장면마다 자신이 잘 찍었는지 확인받고 싶어했다는 연기 경력 40년 배우의 내공은 스크린에서 빛을 발한다. 아마도 다른 여배우가 연기했다면 아들에 대한 그녀의 광기 어린 사랑이 한낱 짐작으로만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박쥐’의 김해숙

주로 TV에서 활동하던 김해숙은 원반·신하군이 주연을 맡은 영화 ‘우리형’을 통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의 변신은 끊임 없이 이어졌다. 손예진과 함께 출연한 ‘무방비 도시’에서는 터프한 소매치기 역할을 맡아 완벽한 변신을 보여줬다. 또 영화 ‘건축사’에서 ‘우리 사랑’에서는 당당히 타이틀 롤을 맡아 20대 남성들 사랑에 빠지는 하숙집 주인 역할을 멋지게 연기했다. 김해숙의 연기가 빛을 발한 건 ‘박쥐’에서다.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관객들의 호불호가 정확히 갈리는 작품이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주인공 송강호의 연기와 신하군·김해숙 등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여주인공 김옥빈의 사이머리통 등장한 김해숙은 극 초반부터 강한



인상을 전해준다. 병약한 아들 강우에게 집착하고, 고아였던 아이 태주를 데려다 키워 아들과 결혼 시킨 후 구박하는 김해숙의 씩씩한 눈빛 연기는 관객들을 긴장하게 한다. 마자 게임을 하며 보드카를 마시는 장면, 자신의 주요 공간인 한복집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일품이며 특히 아들 강우의 죽음을 겪은 후 전신마비가 된 그녀가 흡혈귀로 변신해 가는 태주와 상현을 지켜보고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표정 연기는 압권이다.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2009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다. 김해숙은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전혀 상반된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전체 시청률 1~2위를 달리고 있는 MBC 드라마 ‘하얀 거짓말’에서는 냉철한 시어머니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잘했군 잘했어’에서는 미혼모가 된 딸아이를 걱정하는 중급직 주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거북이 달린다



이수룩한 시골 형사와 탈주범의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로 코믹 터치가 가미됐다.

특히 영화 ‘추격자’로 지난해 거의 모든 시상식의 남우주연상을 휩쓴 김윤석 이 주인공을 맡아 기대감을 높인 작품이다.

충남 예산의 강력계 형사 조필성은

소싸움서 한뼘잡은

이수룩한 시골형사

직접 범인검거 나서

한심한 캐릭터다. 변변한 사건도 터지지 않는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싸움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

부인 물레 통장에서 돈을 빼낸 후 친구 오빠를 시켜 소싸움에 돈을 건 조필성은 원금의 여섯배가 되는 1천 800만 원을 따게 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느닷없이 등장한 탈주범 송기태에게 돈을 뽐팡 뽐팡 조필성은 기가 막히다.

사회를 떠돌아다니며 만주를 휘젓고 다니는 탈주범이 작을에 있다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조필성은 홀로 탈주범 잡기에 나선다.

송기태 역으로 드라마 ‘자명고’에서 호동훈으로 출연중인 정경호가 출연하며 최근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눈도장을 찍은 선우선, 중년 배우 견미리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mm) featuring a grid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